

물리학자와 불교학자 반야심경 풀다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 조용길 지음
불광출판부 | 9000원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가장 간명하고 반야의 핵심을 담은 요전인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니 연기를 공(空) 사상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나는 누구인가,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화두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본 진리중 핵심만 골라 압축한 경전이라고 한다.

반면에 물리학은 오히려 인식하고 분별지로 판단하는 보통사람들이 물질계를 탐구하여 이룩한 학문이다. 그러나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경전을 말하는 세계를 살안다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대물리학이 발전함으로써 불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사진 왼쪽)와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가 동국대 교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교의 진리에 조금이나마 가까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은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와 조용길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한 것이다.

물리학자와 불교학자의 만남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일반인이 불교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랜저지 동양사상을 현대물리학적으로 조명한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이다.

예를들면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명할 때 현대물리학적으로 색 공은 논리적으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자연은 이율배반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이중성이 본질이라면 반야심경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중성을 하나의 원리로 정리한 것이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물질은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물질로 가득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은 1996년에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책은 '관자재보살의 논리' '공(空)의 불교적 의미' '고전물리학:결정론적 인과율'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과 반야심경' '상대성이론' 등 반야심경을 물리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워싱턴(Washington)대학에서 이론 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로서 경남 함양에 약천사를 건립,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며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용길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단장과 동국대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의전상식 ABC 생생한 경험에 담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각종 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전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경축행사, 국영절 환영식 등 10년 넘게 국가 중요행사의 전 업무를 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의전상식을 담은 책인 정현규 서기관 53·행정자치부 행정공무원추진단 기획총괄팀장·서진.

<글로벌 시대의 의전행사 성공전략>에는 '각종 의전행사 장면' '의전에 대한 기본이해' '현대의 국가적 의전행사 현황' '국내의 일반 의전행사' '재미있는 의전 상식' '행사별 식순 사례' '알고 있어야 할 33가지 의전상식'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특히 옛 노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공화 환영행사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피소드와 예포(禮砲)를 발사할 때 대통령이나 국왕 등 국가원수에게는 21발을,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우리나라의 3부요인·국무위원급은 19발을, 각 부처의 차관이나 장관은 17발을 발사한다고 설명 등이 이채롭다.

행정자치부 불심회 회원이기도 한 정 서기관은 "원래 국가 의전행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전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책을 펴냈지만 꼭 국가적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교계행사에 참가해보면 조금 어색한 의전이나 진행으로 전체적인 모임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말하는 정 서기관.

정 서기관은 "의전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행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당일 날씨와 기후변화, 참석자들의 눈높이를 감안한 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종단 행사에 자문과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정현규 서기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5년전 부산교도소에서 교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 서기관은 이후 경남 합천군청 7급 공무원을 거쳐 국가고시(7급)에 합격, 총무처와 행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전행사 성공 전략
정현규 지음 | 창보 | 9800원



반논리학 관점에서 본 중관학

'중도에 대한 관찰'로 해석되는 중관(中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는 흑백논리의 양 극단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중관학은 대승불교를 세운 인도의 용수(BC 150~250)에 의해 장안된 대승불교의 정수인 '공(空)'을 치밀한 논리로 논증하고, 생각과 분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공의 논리학' '해탈의 논리학' '열반의 논리학'이라고 부른다.

또 개념, 판단, 추론에 의해 작동되는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모두 비판한다는 점에서 '반(反)논리학'이라고 명명한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발간한 <중관사상>은 불교학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는 중관학에 대한 개론서이다.

이 책은 '논리학'과 상반되는 '반논리학'의 관점에서 중관학에 대해 접근한다는 데 있다. 또 일반논리학의 3대 주제인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에 차례대로 대비시켜서, '개념의 실체성 비판', '판단의 사실성 비판', '추론의 타당성 비판'이라는 제목을 달아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는 책 후반부에서 인도와 티베트,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문문화권에서 발달한 중관학 각각을 '주석학', '계보학' '삼론학'이라고 규정한 후 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또 중관학 관련 자료와 현대의 중관학 연구서, 그리고 연구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 강사를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불교의 중심철학> <회향론> <중론, 논리로 부처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등이 있다.



중관사상
김성철 지음
민족사 | 1만2000원

난해한 유식론 쉽게 해설



현직 법관이 가장 난해한 불경으로 꼽히는 <성유식론>을 편역한 <주석 성유식론>을 펴냈다.

그 동안 <육조단경읽기> <반야심경·금강경읽기> 등의 불경 주해서를 펴낸 바 있는 파주시법원 김원우(55·사진) 판사가 주인공.

불교 유식론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오직(唯) 의식(識) 내부의 대상을 인식할 뿐이지 그 인식되는 것에 상응하는 외부대상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 불교 유식론을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술한 논저가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이 주석들을 취합해 한문으로 옮긴

<성유식론>이다. 원문은 5세기경 북인도 출신 학승 바수반두(世親)가 유식의 뼈대를 30수의 계승으로 노래한 '유식 삼십송'을 당나라 시대 난타 안해 호법등 10대 논사들이 주석한 것. 판사는 현장 스님의 논서를 또다시 주해한 자은 규기스님의 <성유식론술기>를 발췌하여 우리말로 번역하고 각주를 붙였다.

우리말로 나온 <성유식론>은 지금까지 동국대경원에서 나온 한글대장경에 포함된 한 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본의 축약적인 서술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세한 해설과 주석없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김 판사는 유식을 공부하고픈 사람들에게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어려운 글의 흐름을 쉽게 정리하고 자세한 풀이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우 판사는 1976년 사법고시(제18회)에 합격한 후 1981~2000년 판사, 변호사를 거쳐 2001년 부장판사로 재임용돼 2004년 이후 파주시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주석 성유식론
김원우 편역 | 한산암 | 4만원

독도는 우리 땅

영유권 문제로 조용할 날 없는 독도. 7년 전 본지지를 독도에 이천해 독도사랑을 실천한 윤영은씨가 주지 법사 스님(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대표)이 독도에 관한 서적 <겨레의 섬 독도>와 <한국령 독도>를 발간했다.

재미 사회학자인 차종환 미주한인재단 이사장과 북한측 독도 연구 일인자인 김동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와 함께 저술했다.

<겨레의 섬 독도>는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한일 양국의 역사적 기록,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근현세사의 독도 역사를 서술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록으로 독도 관계 연표와 일본의 '독도 망인' 역사 등을 담아 자료적 가치도 크다.

<한국령 독도>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중심으로 두고 독도를 지켜온 선인들의 일화, 독도 명칭의 변화, 독도문제의 대책 등을 담았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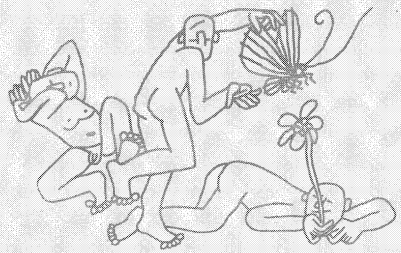
한국령 독도 '겨레의 섬 독도'
법사 스님 · 차종환 · 김동인 공저
해조출 | 각 1만5천원

yosiamun.com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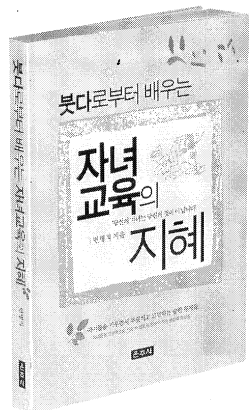
- 방기사이록 강설 불광출판부, 해당 지상 스님, 1만5000원
 - 만화 상철근스님1·2 열린마음, 원해 스님, 각9800원
 - 오늘부처의일기들려라 은행나무, 원해 스님, 1만4000원
 - 와은 바다에서 꽃을 마시다 예문, 한승원, 9800원
 -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화문, 선목 해사 스님, 2만원
- 도서주문 (02)2004-8219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끼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민병직 지음 | 국판 | 288쪽 | 9,800원 www.buddhabook.co.kr

* 모든 불자 가정에 한 권씩 선물용 · 법보시공으로 좋습니다.

은주사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이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이난존자의 일기

①② 전2권

원나시리 지음, 범타스님 옮김
국판양장 |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달마선

달마선은 선종의 뿌리이고 근본이며 정통선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달마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가경』과 초기 선종 어록들을 근거로 선종의 근본을 찾아가고 있는 책으로, 선종의 주요 개념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의 근본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박건주 저 | 국판양장 | 272쪽 | 10,000원

도서출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빙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926-8362